

Media Release

NSW 지방 지역의 새 전입자를 환영하는 고용주 공로인정

2024 년 4 월 9 일, 화요일

NSW 의 머리 및 리버리나 지구 전역에 걸쳐 12 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이민자나 난민들이 웨스턴 시드니로부터 지방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NSW 정부 자금 지원하에 운영되는 ‘NSW 환영 성장지역 (GROW)’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에서 17 명의 고용주들이 오늘 밤 ‘챔피언 고용주상’ 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지난 18 개월간 29 명이 이 지구로 터전을 옮기어 노인복지, 법, 엔지니어링, IT 및接客업 등의 주요 업계에 부족했던 고용을 창출해 냈다.

NSW GROW 는 2022 년 6 월에 이 지구에서 론칭했으며, 웨스턴 시드니와 NSW 지방을 연결하는 내부 이주의 링크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산업부분의 공동 노력을 지원하는 라이프스타일 및 고용 프로그램으로 고안된 것이다.

NSW GROW 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해당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집을 구하게 하여 수도권 지역의 서비스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NSW 정착 조정 총책임자인 피터 셔골드 교수는 호주 적십자사, 지방개발 호주 리버리나 등의 파트너 기관들을 동참시키고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다문화 NSW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multicultural.nsw.gov.au/grow/>

NSW 정착 조정 총책임자 피터 셔골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민자나 난민들이 이 아름다운 우리 주 내에서 그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NSW 지방도시들이 모든 이에게 집과 일자리 그리고 누구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제공할 역량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지역사회와 손잡고 일함으로써 저희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주 중의 하나라는 우리의 평판을 강화 하는 것을 돕습니다.”

다문화 NSW CEO 인 조셉 라 포스타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민자와 난민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노동력을 증강시키고 해당 지역사회에 소중한 기여를 한다고 믿는 많은 고용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누구든 NSW 전역에 걸쳐 새로운 터전에서 성공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의 꿈도 이루고 그들을 환영하는 지역사회에서 번창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 주었습니다.”

미디어: 케리-앤 홉스,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0439 086 356